

# ‘해체 공사장’ 착공 신고 의무화 서울시, 시공사 책임 강화한다

CCTV·가설울타리 등 설치해야  
인명피해 우려땀 해체 심의 강화

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해체 공사장은 CCTV나 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야 착공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8일 ‘해체 공사장 5대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시는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해체 공사장에 착공 신고를 의무화했다. 그간 해체공사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만 받으면 시공사가 별도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감리자가 안전점검을 마친 뒤 허가권자(자치구)가 이를 검토·승인해야 해체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같은 공공 이용 시설과 인접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해체공사장은 해체 계획서에 안전관리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해체 심의를 강화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해체 공사장 상주감리는 모든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에 의무화된다. 그동안 건축물별, 자치구별 상주감리 지정 기준이 달라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 시는 전문가를 투입해 상주감리 현장을 3

회 이상 불시점검하고, 해체 공사 중 가장 위험한 작업인 최상층 골조 해체 전 공무원-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3월부터 공사장 내 CCTV를 공공이 관제하는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을 운영해 감시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중·삼중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해체공사장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지난 2일 경희사이버대와 케이워터운영관리(주)가 산업체위탁 및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희사이버대

## 경희사이버대-케이워터운영관리, 산학협력

인적·물적 교류 등 합의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2일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회의실에서 케이워터운영관리(주)와 산업체위탁 및 산학협력 협약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케이워터운영관리(주)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2018년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변창구 총장, 민경배 글로벌·대외협력처장, 윤병희 글로벌·대외협력팀장, 권해숙 세무회계학과 학과장과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이명환 대표, 강동일 부장, 이아라 대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 체계 구축, 현안 및 정책 등에 대한 자문·지원, 상호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등에 합의했다. 또한,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구성원은 비번 협약에 따라 경희사이버대 정규 학사 과정과 동 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 입학 시 등록금에 대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현진 기자 ihj@

# 초·중·고 31만개 교실서 와이파이 터진다

교육부, 전체교실 대비 79% 해당  
교원에 최신 컴퓨터 25만대 지원

국내 초중고 교실과 도서관 등 학교 시설 10곳 중 약 8곳에서 기가급 무선망(wi-fi)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과제로 추진 중인 학교 무선망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전체 초중고 일반교실과 도서관과 동아리실 등 특별교실·학습지원실 등 전체 교실 대비 79%에 해당하는 총 31만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했다. 또, 노후기

기를 사용하는 교원에게 최신 기종 노트북 등 컴퓨터 25만여대를 지원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교수학습 혁신과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전체교실의 98%에 해당하는 38만7000개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실상 모든 학습 공간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추후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등 미래교육전환 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온라인 수업 시 별도 기기와 교사 개인이 보유한 소형 공유기, 데이터 함께 쓰기 등을 준비해야 했고, 통신 속도 제약과 접속 불안정 등으로 쌍방향 수업이나 고용량 콘텐츠 활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보다 안정적으로 쌍방향 화상수업 등의 진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9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서울청량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무선망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무선망을 활용한 수업을 참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서대문구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 ‘반사경, 반사문’.

/서울시

## 서울 곳곳에 12개 공공미술 작품 전시

문체부와 ‘서울, 25부작’ 진행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이들에겐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침체된 미술계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공공미술 작품들이 서울 전역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서울, 25부작’을 진행해 11개 자치구에서 12개 작품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종로구, 서대문구 등 11개 자치구를 배경으로 작품별 10~40명의 작가들이 한 팀을 이뤄 전시물을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미디어아트, 퍼포먼

스, 출판, 영상 기록물 등 여러 장르가 결합된 실험적인 작품들이다”며 “종로 낙원상가, 동대문구 답십리 영화촬영소, 양천구 잠수교, 도봉구 창동고가도로 등 지역적 특징을 담아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독창적인 작품을 구현했다”고 말했다.

‘만남의 광장’은 종로구 낙원상가를 배경으로 노인들이 바둑대회를 여는 과정을 기록한 영상물이다.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유된다. ‘Seed Station-우주농부의 정원’은 도봉구의 토종 씨앗을 기록·전시하는 박물관이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공무원 노조 청렴서울실천협약 체결

서울시는 공무원 노동조합들과 ‘청렴서울 실천협약’을 맺는다고 8일 밝혔다.

이날은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9일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와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양대노조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전 직원 참여 ▲부정청탁 및 불합리한 관행 등 부정 부패 행위 척결에 공동 협력 ▲청렴서울실천협약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이행과제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청렴도를 1등급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시는 지난 2013년 청렴도 2등급을 기록한 이후 주로 하위권에 머무르다 2019년 3등급을 받고, 작년에도 다시 2등급으로 올라섰다.

시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1실·본부·국 1청렴 실천과제’ 추진, ‘전 직원 청렴 의무교육’ 실시, ‘청렴 알림문자’ 발송 등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 ‘토크온더젠더’ 학생 450명 참여 성료

한신대 대학일자리센터

한신대학교(총장 연구홍)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이미옥)는 지난 4월 12일부터 3차에 걸쳐 진행된 ‘토크온더젠더’ 프로그램이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토크온더젠더’ 프로그램은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예비 여성 사회인으로서 취업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당초 수강 인원을 300명으로 제한해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학생들의 신청이 몰리며 모집 인원을 늘려 약 450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해당 교육은 ▲나부터 알기(여학생 자기이해, 진로장벽 깨뜨리기) ▲젠더

의식훈련(당연한 권리찾기, 여성직무와 채용) ▲워킹맘이야기, 성공 ‘할’ 여성사회인 등을 주제로 3차시에 나눠 진행됐다. 프로그램에는 남학생들도 참여해 조직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 참여한 이나영 학생(일본학과 19학번)은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비전설정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갔다”며 “강의를 통해 목표 우선순위를 정하기, 목표설정, 진로계획 수립, 취업전략 수립, 나를 위한 역량 개발에 대해 생각해보니 차근차근 정리가 됐다”며 “비즈니스 매너에 대한 내용, 5W2H로 생각하기 등 실용적인 강의도 진행돼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현진 기자

## 세종대 ‘대학ICT연구센터’ 지원과제 선정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2021년도 ‘대학ICT연구센터(ITRC)’ 신규 지원과제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대학ICT연구센터’는 국내 대학의 유망 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센터를 선정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ICT 분야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차세대통신, 사물인터넷 등 ICT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가 높은 유망 기술 분야와, 디지털콘텐츠, 블록체인 등 국내 기술 수준 향상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8개 과제를 선정했다.

세종대는 8개 과제 중 사물인터넷 분

야에 선정돼 메타버스 자율트윈 분야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 수행을 하며 창의·혁신적 연구역량을 갖춘 고급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향후 최장 8년간 매년 8억원 수준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총괄책임을 맡은 김재호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세종대 메타버스 자율트윈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그랜드 컨소시엄간의 개방형 협력연구를 통해 물리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자율트윈 기반 메타버스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센터로 발전시켜 새로운 디지털 세상의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